

# 해방기 부산화단의 단면\*

## - 김종식과 시대의 기록 -

김정선\*\*

### | 목 차 |

- I. 머리말
- II. 해방기 이념지형과 부산화단의 동향
- III. 김종식의 해방기 작품과 시대의 기록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1945년 광복에서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해방기는 식민지 체제의 종식과 함께 민족 국가 수립을 둘러싼 첨예한 이념 대립의 시대였다. 미술계 역시 좌우 진영에 따른 단체의 분열과 재편이 반복되는 가운데 오랫동안 해방기 미술은 조형적 이념을 실현하지 못한 ‘혼란기’로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기는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 민족미술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생적 실천들을 전개한 전환기이자 역동의 시간이기도 했다. 이에 논고에서는 그간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해방기 부산 화단의 지형도를 추적하고, 좌우의 이념 갈등을 넘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했던 지역 화단의 움직임을 부산

\* 본 논문은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가 주최한 ‘문화예술을 통해 본 해방기 부산’ 학술대회(2025. 8. 29.) 때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조교수 / [moran74@dau.ac.kr](mailto:moran74@dau.ac.kr)

1세대 서양화가 김종식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에서는 1946년 미술동맹 부산지부를 시작으로 다수의 미술단체가 발족, 해산했으며, 특히 부산미맹의 결성에서 해산, 그리고 1950년 경남미협 통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미술조직의 개편을 넘어 이념 노선과 정책에 따라 단체를 조직하고 새로운 모색을 거듭해야 했던 해방기 화단의 단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종식의 <귀환동포>와 <전쟁>(1948년)은 기존에 그가 추구했던 추상적, 실험적 화풍에서 벗어나 당대의 현실을 포착한 작품이었다. 귀환동포의 암울한 삶의 모습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무거운 삶과 시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이후 1950년대 토벽동인에서 “시대의 증인”을 자처했던 청백으로 이어져 부산화단의 중요한 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종식의 해방기 작품은 이념 대립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부산화단의 자생적 실천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생각된다.

주제어: 부산, 해방기, 김종식, 부산미맹, 귀환동포, 이념투쟁.

## I. 머리말

1945년 광복에서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해방기’는 식민시대의 종식과 동시에 민족 국가 수립을 둘러싼 첨예한 이념 대립의 장이었다. 미술계 역시 해방 직후인 8월 18일, 새로운 민족 미술 수립을 목표로 전 미술인이 동참했던 조선미술건설본부(이하 미건)가 곧 이은 좌익 성향의 젊은 미술가를 중심으로 한 조선프롤레타리아미술동맹의 결성과 이에 따른 이념 차이로 이듬해 1월 해체되는 등, 해방기 내내 정치, 이념에 따른 미술단체의 난립과 이합집산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과, 1980년대 후반까지도 해방기는 어떠한 조형적 이념도 실현시키지 못했던 ‘혼란의 시대’, ‘암흑기’로 서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sup>1)</sup>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기는 다수의 화가들이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 민족미술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생적 실천을 전개한 전환기이자 역동의 시간이기도 했다.<sup>2)</sup> 실제 부산에서도 해방과 함께 귀국한 화가 수가 급증했으며, 경남 지역 화가들과의 연대와 단체 설립은 과거와는 다른 미술 환경을 만들고 있었다. 본 소론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그간 공백으로 남아 있던 해방기 부산화단을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다.<sup>3)</sup>

사실 해방 이후 부산화단에 대해서는 종래, 일부 화가들의 증언이나 회고를 기반으로 단편적인 내용이 반복해서 서술되어 온 감이 크다.<sup>4)</sup> 이는 한국전쟁 등으로 해당 시기의 작품이 대부분 소실되거나 부재하고 몇몇 신문, 잡지를 제외하고 관련 문헌자료의 수집조차 용이하지 않은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본 논고 역시 이러한 한계를 체감하며 제한적이기는 하나, 문헌자료와 최근의 개별 작가에 대한 전시 및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sup>5)</sup> 성급게나마 해방기 부산화단의 지형도를 추출하는 한편, 이념 갈등을 넘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했던 지역 화단의 움직

- 1) 198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견해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수경, 「청계 정종여의 해방기 작품과 활동: 민족미술론의 수용과 실천」, 『미술사학보』 47, 2016, 56쪽.
- 2) 최근에는 해방기 미술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정무정, 「미 공정기의 문화정책과 미술계」, 『미술사연구』 18, 2004; 이진성, 「조선미술동맹의 <<이동미술 전람회>>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수경, 앞의 논문 등.
- 3) 해방기 부산의 문학, 연극, 음악 활동에 관해서는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비해 미술 분야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현재 부재하며, 부분적이거나 해방기 부산화단을 언급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용길, 『부산미술사료』, 2006; 김인아, 「부산·경남지역 서양화단 연구-1930~50년대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문화유산』 5, 2016; 배진영,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국전쟁 전반기 부산지역 서양화단에 대한 연구」, 『항도부산』 35, 2018; 정종효, 「부산미술, 일제강점기의 생성과 피란수도기의 조응적 전개-서양화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3-1, 2020.
- 4) 해방기 부산화단에 대한 대표적인 증언으로는 서양화가 임호가 1965년 기술한 「부산화단 해방 20년사」(부산시립미술관, 『도큐멘타 부산 자료로 보는 부산미술 I·II』, 2006, 39쪽 재록)를 들 수 있다.
- 5) 부산시립미술관, 『김종식』, 2018; 경남도립미술관, 『여산 양달석』, 2021.

임을 부산 1세대 서양화가 김종식의 작품을 통해 엿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그의 작품에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는 시선은 1950년대 토벽동인에서 “시대의 증인”을 자처했던 청맥(靑脈)으로 이어지는 부산화단의 특질과 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다.

## Ⅱ. 해방기 이념지형과 부산화단의 동향

1940년대까지도 부산화단은 “문화계 예술계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 요. 예술을 하는 사람을 전차를 타고 서로 찾아다녔고 그런 사람이 열 손가락으로 셀 수”<sup>6)</sup>있을 정도로 열악했다. 이러한 부산 미술계가 변모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기를 전후해 일본 제국미술학교 출신의 김종식, 김용환, 양달석을 비롯해 동경문화학원 미술과의 박성규, 오사카미술학교의 김윤민, 김인태, 태평양미술학교의 이준 등이 귀향하고 미술 단체가 조직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 해방 초기, 가장 먼저 화단을 규합한 것은 좌파계열의 예술운동이었다.<sup>7)</sup> 1945년 10월, 연극 단체 인민예술좌를 필두로<sup>8)</sup> 경남해방운동자구원회, 조선신문화건설회 등이 발족하고, 이듬해 2월에는 요산 김정환을 중심으로 한 조선문학동맹 부산지부와 해방기 부산 최초의 미술단체인 조선미술가동맹(이하 미맹)<sup>9)</sup> 부산지부가 결성된다.<sup>10)</sup> 미맹은

6) 『부산일보』 1984. 9. 11., ‘원로예술인을 찾아서(2) 서양화가 김종식’.

7) 이순욱,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43, 2012, 194~195쪽.

8) 『민주중보』 1945. 10. 13., ‘진정한 문화 수립코저 『인문예술좌』 활동 개시’.

9) 조선미술가동맹의 전신은 해방 직후 사회주의 미술운동 재건을 목표로 결성한 조선프롤레타리아미술동맹이다. 본 단체는 10월 30일, 조선미술동맹으로 개칭하였으며, 1946년 2월에 우파 계열의 조선미술가협회를 탈퇴한 김주경, 이인성 등이 가세하여 조선미술가동맹으로 재개편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조선조형예술과 통합하여

서양화가 양달석(1908~1984)을 위원장으로, 당시 부산의 거의 모든 화가가 참여한 유일한 미술 단체였다.<sup>11)</sup> 일본 잔재 청산과 민족미술 수립을 행동 강령으로 선포하는 한편, 3·1절 경축미술전, 광복 기념미술전 등 적극적인 미술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였다(<표 1> 참조).

#### 강령

1. 일본 제국주의 잔재의 소탕
2. 봉건주의 잔재의 청산
3. 국수주의의 배격
4.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적극적 협력
5. 조선 고유미술의 자유 발전을 도(圖)함<sup>12)</sup>

이들 기념전에서는 대체로 “시국을 반영한 대작”들이 다수 출품되었는데<sup>13)</sup> 1947년 8·15기념미술전 특선은 김종식의 <해방감격>이 수상했다. 같은 해 제작된 양달석의 <해방이여!>(<도 1>) 역시 유사한 주제의 작품으로, 집회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난 시골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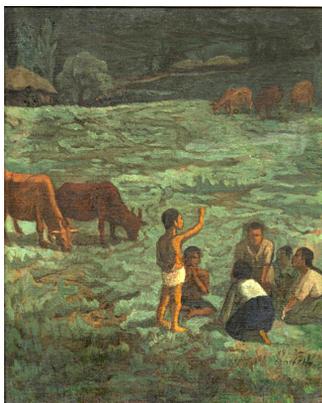
---

해방기 최대 좌익 미술단체인 조선미술동맹을 출범시켰다.

- 10) 1946년 2월 14일에는 문학, 연극, 미술, 음악 등 전체 예술인을 규합한 조선예술동맹 부산지구협의회를 결성하여 예술 부문의 연대와 세력 구축이 공고해졌다. 미술부에는 양달석, 우신출이 대의원으로 참석하였다. 『민주중보』 1946. 2. 16., ‘민주민전과 동보조를 활발히 예술운동 전개’.
- 11) 미맹 부산지부는 위원장 양달석 이외에 총무부장 홍월촌(洪月村), 사업부장 우신출, 조직부장 서성찬, 재무부장 김남배, 교육부장 서태문 외 위원 5명으로, 대부분 서양화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양달석, 『자서전(B)』, 『여산 양달석화백 유작전』, 동서화랑, 1984, 20쪽; 서성찬, 『민주전선에 전극 협력, 조선미술동맹 부산지부 결성』(김동화, 『화가 서성찬에 관하여(2)』,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 9집 2017, 28쪽 재록).
- 12) 김동화, 앞의 글, 28쪽
- 13) 『부산일보』 1947. 2. 27., ‘삼일미술전 미술동맹서 개최’. 당시의 리플릿을 참조하면 김봉기 <충실당한 삼투사>, 양달석 <피의 기록>, <앞으로!>, 서성찬 <집 없는 동포>, 홍월촌 <오! 감격의 그날 삼월초하로(3·1기념 3부작)>, <남은 가시고> 등 시국색을 반영한 작품들이 다수 확인된다.

년과 그를 비추고 있는 어슴푸레한 불빛에서는 새 시대를 향한 강한 희망과 의지가 느껴진다.

한편, 1947년 7월에는 조선문화단체 총연맹(이하 문련) 산하 문화공작대의 종합예술제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문련은 1946년 2월에 조선학술원, 조선과학자동맹 등의 학술 단체를 비롯해 문학, 연극, 음악, 영화, 미술 등의 25개 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좌익노선의 문화예술단체였다. 1947년부터는 이념 실천



〈도 1〉 양달석, 〈해방이여〉,  
1947년, 개인소장

과 세력 확장을 위한 방안으로 예술인으로 구성된 문화공작대를 지방에 파견했다.<sup>14)</sup> 총 4개 그룹으로 나뉜 예술인들은 전국을 순회하며 시 낭독, 만담, 무용, 연극 공연 및 미술, 사진전 등을 열었다. 첫 도착지였던 부산에서는 각종 공연과 더불어 미술전이 7월 1일부터 12일간 조선일보 부산사옥에서 개최되었다.<sup>15)</sup> 전시에서는 조선미술동맹과 사진동맹

14) 문련은 1947년부터 문화공작대를 조직하고 지방 곳곳에 파견했다. 총 4개 대(제1대 경상남도, 제2대 충남북, 경북, 제3대 경기, 강원, 제4대 전남북)로 나뉜 예술인들은 지방민들을 위한 종합 예술제를 기획했는데, 연극, 영화, 음악, 시낭송, 이동 전람회, 사진전 등이 총 망라되었다. 동원된 예술인만 150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계속되는 검열과 테러로 8월초까지 운영되었다. 조은정, 『해방기 문화공작대의 의제와 성격』, 『상허학보』 41, 2014 참조.

15) 미맹이 추진한 이동미술전은 문화공작대와 별도로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맹은 “미술의 인민적 계몽”을 명시한 강령에 따라 가두전, 벽보, 만화, 전단 제작과 같은 계몽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이동미술전도 이러한 일환으로, 1947년 5월 이동미술전대(移動美術展隊)를 조직하고 경남 마산을 시작으로 부산, 진주, 청주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다.(<https://encykorea.aks.ac.kr>) (검색일:2025.8.29.) “문련에서는 조선문화운동사상 획기적인 문화공작대를 경남에 파견하기로 되었거니와 이와 병행하여 조선미술동맹에서는 이동미술전을 개최코져 최재덕씨를 문화공작단과 같이 파견키로 되었다한다”. 『노력인민』 1947. 6. 29., ‘이동미술전개최’. 이 외에 조은정, 앞의 논문, 259쪽.

소속 회원 작품 60여 점과 지역 작가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약 열흘간 이어진 전람회는 연일 만원의 대성황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sup>16)</sup>

그런데 이러한 미술계의 초기 좌익계 노선은 1947년 5월 미·소공동 위원회가 결렬되고 단독정부 수립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8월부터 급변하는 양상을 보인다. 좌파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및 숙청작업이 시작되면서 부산지부 소속 화가들은 미맹을 탈퇴하고 부산미술협회로 개칭하는 등 노선 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8월에는 미맹 부산지부 위원장이었던 양달석이 검거되기도 했다.<sup>17)</sup>

다만, 이 과정에서 당대 부산의 문학, 연극계와 마찬가지로 좌우의 극렬한 이념투쟁은 찾기 힘들다.<sup>18)</sup> 전후의 반공 이데올로기 영향으로 다소 편향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서양화가 임호는 1960년대에 쓴 회고문에서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부산에서 지부가 결성됨으로 재부 화가들의 대다수가 이곳에 모였으나 그 단체의 간부되는 일부 인사들의 불순한 정치성으로 순수한 미술단체라기 보다는 미·소공동위원회를 계기한 좌익정당의 세력 확충에 이용되었으나 대다수의 화가들은 탈퇴하고 끝내는 불법단체화되어 중앙은 물론이거니와 부산지부도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말았다”<sup>19)</sup>

즉, 미맹 결성과 활동은 투철한 이념의 실천이었다기 보다는 당시의

16) 『문화일보』 1947. 7. 12., ‘미술, 사진전람회 종합예술제와 아울러 대성황’. 그러나 당시 예술제는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4일에는 공연금지 명령, 6일에는 폭탄테러를 당했다. 『자유신문』 1947. 7. 26., ‘미전에도 테로’.

17) 『부산신문』 1947. 8. 15., ‘검거 아직 계속 양달석씨 등 피검’.

18) 이순욱, 앞의 논문, 108쪽; 정민경, 『해방기 부산지역 연극사회의 동향』, 『한국문학논총』 94, 2023.

19) 임호, 앞의 글, 39쪽.

정치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생성, 소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달석 역시 1970년대 회고문에서 부산미맹 조직이 정치적 신념보다는 “우열을 가리지 않고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발표”<sup>20)</sup>의 장으로 출발했음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양달석이 미맹 해체 이후 발족한 우파계열의 부산미협 회장에 재추대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일정 기간 미술계의 좌경화 분위기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11월 5일, 해방 이후 전국 최초의 공모전인 부산미술전이 민주중보사 주최로 개최되었다.<sup>21)</sup> 양달석을 비롯해 김남배, 우신출, 박생광, 전혁림, 김종식 등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부분의 화가들이 심사위원 및 초대 작품으로 참여했으며, 130여 점이 넘는 작품이 응모될 정도로 큰 성황을 이루었다.

그런데 제1회전 심사위원장으로 추대된 인물은 조선미술동맹 서기국장을 지낸 좌익 성향의 서양화가 김만형(1916~1984)<sup>22)</sup>이었다. 그의 선정 배경은 현재로서 불분명하나, 『민주중보』가 중도지를 표방하면서

20) 양달석, 앞의 글, 20쪽.

21) 『민주중보』가 이 시기 대규모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현재 정확하지 않으나, 1948년 6월 필화사건으로 무기 정간 처분을 받고 8월에 항일투사 최전택(1896~1961)을 사장에 영입하는 등 새롭게 체제를 정비한 직후였다. 게다가 초기 『민주중보』가 일제강점기 일본어 신문인 『부산일보』 출신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1920~40년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던 『부산일보』 주최 부산미술전람회 의 성과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향토미술인 및 미술학도의 유일한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술의 대중화와 공공성을 실현할 뿐 아니라, 신문사의 사세 확장과 인식 제고에도 유효했기 때문이다. 본 공모전은 한국전쟁 발발로, 1949년의 2회전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이후 민주중보는 1950년 2월부터 제호를 민주신보로 변경하고, 1958년부터 60년까지 경남미전을 개최했다. 부산일보 주최 부산미술전람회에 대해서는 줄고, 『일제강점기 『부산일보』 주최 미술사업, 『석당논총』 86, 2023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22)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했으며, 1934년 일본 제국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수학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조선미전에서 활약했다. 광복 직후에는 조선미술동맹에 적극 가담하였으나, 1949년 무렵 보도연맹을 통해 전향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직후 남침 공산체제에서 중앙미술제작소 회화, 조각부장으로 가담했으며, 9·28 서울 수복 때 월북했다.

도 온건한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었고,<sup>23)</sup> 양달석 등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초기 미맹 회원으로 활동했던 점과도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김만형은 다음과 같은 심사평을 신문에 게재해 주목된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미술은 모던한 부분 예술과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의 것이다. 미술가는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태도를 버리고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는 것이 미술가의 할 일인 것이다. 봉건사회 아래에서 벗어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겨레가 오늘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그림 바다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만 그 작품은 현대성을 띤, 또 일반 대중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참된 예술작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속내평으로써 부산미술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볼 때 작품의 거의 모두가 옛날의 묵은 모습 그대로 개인 외관을 멋부리기 위한 풍경 스케치와 발미(發味)한 정물습작으로 가득 차 있음은 섭섭한 일이다. 왜 우리 인구의 8할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의 얼굴 그림 하나 볼 수 없을까, 고기잡이들의 씩씩한 모습 하나 볼 수 없을까?”<sup>24)</sup>

결과적으로 출품 작품들은 대체로 풍경과 정물 습작들이었으나, 미술의 현실 참여를 강조하며 건실한 노동의 현장을 그릴 것을 요구하는 김만형의 심사평은 미술학도는 물론, 지역 미술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노골적인 논조는 1949년 11월에 개최된 2회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상전향자를 보도(保導)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보도연맹이 조직되고 다수의 좌익 인사들의 전향이 본격화되는

23) 채백, 『미군정기 『민주중보』의 이념적 성향』, 『한국언론정보학보』 48, 2009.

24) 『민주중보』 1948. 11. 10., ‘조선미전소감(상)’(김만형).

시기였던 점도 있겠으나,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양달석은 부산미전의 향방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직도 일부 작가와 학도들이 낡아 빠진 데카당티슴(퇴폐주의)이며 형식주의적인 기교에만 힘쓰고 있음은 결국에 가선 뿌리가 없는 나무나 초석이 약한 건축과 같은 운명에 빠지고 말 것이니, 냉정한 반성에서 앞으로 무진장(無盡藏)의 창작 자본을 위하여 진실한 시련을 바란다.”<sup>25)</sup>

즉, 퇴폐주의, 형식주의 미술을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사실적인 착실한”작품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발언이 추상미술 등을 퇴폐적, 반민중적으로 간주하며 리얼리즘의 가치를 주장했던 좌파 미술가들의 논조와 일정 부분 겹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진실한 화풍은 당시 양달석이 주장했던 민족미술의 실현이었으며, 대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의 성격상 체계적인 기초 습득과 이에 따른 진실한 화풍은 선행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2회전 특선은 김덕수(이화여대) <독서>, 이응윤(마산상중) <농가>, 김천옥(부산여중) <다리>, 이영자(경남여중) <어촌>, 김보윤(부산상중) <숲속의 옛집>이 수상했으며, 대체로 인물과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학생들의 작품이었다.<sup>26)</sup>

부산미술전은 한국전쟁 발발로 단 2회를 끝으로 중단되나, 지역 유일의 공모전으로 매회 100여 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고 수만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다.<sup>27)</sup> 게다가 특선을 수상한 김덕수, 김천옥이 전후 부산의 1세대 여성화가로 성장하는 등 부산미술전은 신진 작가 발굴 및

25) 『민주중보』 1949. 10. 28., ‘부산미술전평(상)’(양달석).

26) 『민주중보』 1949. 10. 26., ‘특선 5점에 장려상’.

27) 『민주중보』 1949. 11. 4., ‘감격도 또(又) 일신(一新)’.

미술 대중화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산미맹이 해산되고 부산화단이 우파 위주로 재편되던 무렵, 해방기 부산을 대표하는 2개의 미술 단체가 발족한다. 부산, 통영, 진주의 중등교육 미술 교사가 주축이 된 경남미술교육연구회와 경남미술연구회(2회부터는 혁토사)이다. 1947년 결성된 경남미술교육연구회는 회원작품전 이외에도 하·동계방학을 이용해 경남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강연회, 사생대회, 전시회를 개최하고<sup>28)</sup> 교사 및 학생미술전을 후원하는 등<sup>29)</sup> 미술 교육과 대중화에 힘썼다. 현직 교사들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도내 학무국, 미공보원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1949년 7월에는 경남미술교육연구회와 미공보원 공동 주최로 “유화에 경남미술교육연구회, 고미술에 미공보원”이 각각 담당하고, 정중여(1914~1984)의 동양화 개인전을 더한 종합미술전을 기획하기도 했다.<sup>30)</sup>

반면에 경남미술연구회는 1948년 4월 “순수한 연구, 창작, 발표 기관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의 김남배, 서성찬, 우신출, 김윤민, 김봉기, 김원갑 등과 마산의 이준, 이림, 임호, 통영의 전혁림, 진해의 장운성, 진주의 조영제 등이 부산 역전 백양다방에서”결성했다.<sup>31)</sup> 1949년 4월에 개최된 제1회전은 6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sup>32)</sup> 대체로 사실주의 계열의 밝은 색채의 작품들이었던 것으로 언급되어왔다.<sup>33)</sup>

28) 강습회는 1947년 여름방학에 부산과 마산, 겨울방학에는 진주, 48년에는 각각 해인사와 통영에서 개최되었다. 김덕길, 『부산미술의 어제와 오늘』, 『미술세계』 43, 1988. 3, 83쪽(김인아, 앞의 논문 재수록, 322~323쪽), 이외에도 48년 1월 부산, 진주에서도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중보』 1948. 1. 10., ‘학교미술연구회 도내(道內) 3부(府)서 개최’.

29) 『민주중보』 1949. 4. 12., ‘미술전람회연기’; 『부산일보』 1949. 4. 24., ‘경중미술전람회’; 『부산일보』 1950. 3. 21., ‘제2회 경남중학생 미술전람회 개최’.

30) 『부산일보』 1949. 7. 13., ‘종합미술전’.

31) 임호, 앞의 글, 39쪽. 그러나 『부산일보』 기사에 의하면 1948년 12월 27일 발족식을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산일보』 1949. 1. 18., ‘미술연구회 발족’.

32) 『부산일보』 1949. 4. 21., ‘미술전 개최’.

33) 이용길, 앞의 책, 46~47쪽.

화풍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혁토사(赫土社)로 이름을 변경하고 1950년 5월에 개최한 제2회전부터로, 기존 회원에 사진작가 박완서, 임응식, 정인성, 조상범이 합류했다.<sup>34)</sup> 당시 전시평을 참조하면 사실적인 아카데미한 작품 이외에 “내적 세계”나 “필치만으로 조형을 피하는” “채색한 것으로만”<sup>35)</sup> 그려진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전시가 기존의 화풍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했던 점은 다음 후평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회장을 일순(一巡)하고 난 감상을 말하자면 여태까지 고민하는 면을 안이(安易)하게 벗어나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화되어진 이 불무(不無)함을 금치 못한다. 솔직 말하면 근래 회구(繪具: 물감)가 약간 덜어온 탓인지 색채의 복잡화랄까, 또는 구도의 자유 구성이 활발히 전개된 듯하다. 이와 동시에 따르는 전체적인 기공 또는 회화 요소가 등한시된 때문에 미전의 의의와 효과가 관자(觀者)의 머리에 직감되지 않을뿐더러 인상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sup>36)</sup>

즉, 문제가 된 것은 복잡한 색채, 자율적 구성, 회화적 요소의 부재 등으로 혁토사전이 종래의 사실적이며 직관적 화풍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양달석 역시,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서에 조화될 수 있는 생활면에서 독특한 취재나 수법이 한 없이 그림다”<sup>37)</sup>라며 민족의 삶과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아낼 것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혁토사는 곧이어 발발한 전쟁으로 단 1회를 끝으로 해산되었으나, 좌우 이념 갈등과 민

34) 사진, 서양화 합동전은 혁토사전 직전인 1950년 1월 21일~28일까지 미공보원에서 개최된 적이 있었다(『자유민보』 1950. 1. 21., ‘예술사진합동전’).

35) 『산업신문』 1950. 5. 26., ‘혁토사미전평(상)’(양달석); 『산업신문』 1950. 5. 27., ‘혁토사미전평(하)’(양달석).

36) 『자유민보』 1950. 5. 28., ‘혁토사전평’(임흥근).

37) 『산업신문』 1950. 5. 27., 앞의 기사(양달석).

족미술 수립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시기, ‘암흑기’를 넘어 지역 화단의 다양한 시도와 논의를 엿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단 내부의 자생적 움직임과는 달리, 국민보도연맹이 창설되고 좌익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전향이 본격화되는 1949년을 전후해 부산 미술계의 정치적 활동은 강화된다. 실제로 1949년 6월에 대공 문화투쟁의 중심이었던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문총)<sup>38)</sup> 산하 경남본부, 같은 해 11월에는 국민보도연맹 경상남도연맹(이하 경남보련)이 결성되고, 다수의 화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문총의 경우, 경남본부 산하 미술부 위원으로 김남배, 우신출이 선출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기념한 독립1주년기념 미술전람회를 개최했다. 문총 활동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우신출, 이준 등이 문총구국대 소속 중군 화가로 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경남보련 주최 미술전도 추진되어 1950년 2월에 국민예술제의 일환으로 “미술교육연구회는 물론 향도 서양화가를 총동원한 최초의 호화 미술전”이 미공보원에서 열렸다.<sup>39)</sup> 그리고 이러한 미술인들의 규합은 다음 달 경상남도미술가협회(이하 경남미협) 결성으로 보다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된 민족 이념에서 앞으로의 작품 행동을 추진시키고자 도내(道內)에 산재하는 각 미술인들은 대동단결하여 경남미술협회라는 명칭으로 오늘 오후 2시 미공보원 회의실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한다.”<sup>40)</sup>

38) 문총은 1947년 2월 12일 “민족정신 양양, 문화독자성 옹호” 등을 강령으로 하고, ‘반탁지지’와 ‘이승만 격려’ 등을 결의한 33개 문화단체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39) 『자유민보』 1950. 2. 12., ‘보련 주최로 미술전개최’.

40) 『부산일보』 1950. 3. 11., ‘경남미협 오늘 결성대회’.

“종래 향도 화단은 경남미술연구회 및 경남미술교육연구회 기타 동인회 등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이번에 대동단결”<sup>41)</sup>하여 통일된 하나의 민족 이념 실천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한 경남미협이 출현은 단순한 미술조직의 개편을 넘어, 이념 노선에 따라 단체를 조직하고 새로운 모색을 거듭했던 해방기 미술계의 단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인 이념보다 “모든 예술하는 사람이 다 그러하겠지만 미술인은 그림을 그릴뿐이요. 나는 제작을 통해서 살고 제작을 통해서 말하고 또 제작에 죽고 싶다”<sup>42)</sup>고 주장하며 자신만의 화풍을 찾고자 했던 김종식(1918~1988)에 주목하고자 한다.

〈표 1〉 해방기 부산지역 미술전람회 개최 목록

일시	전람회	주최 및 장소
1946.2	김종식 개인전	장소: 동래공립중학교 강당
1946.3.	3·1절경축미술전	주최: 조선미맹 부산지부 장소: 남일국민학교 강당
1946.8.15~19	광복1주년기념미술전람회	주최: 조선미맹 부산지부
1947.3.1~5	3·1절기념미술전	주최: 조선미맹 부산지부 장소: 남일국민학교 강당
1947.7.1~12	종합예술제 (이동미술전람회)	주최: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장소: 부산조선신문사 2층
1947.8.15~20	8·15해방기념미술전	주최: 조선미맹 부산지부 장소: YMCA(기독교청년회관)
1948.3.18~21	양달석 개인전	장소: 부산진출장소 회의실
1948.8.17~21	8·15해방기념미술전	주최: 부산예술연맹 장소: 경남중학 강당
1948.11.5~14	제1회 부산미술전람회	주최: 민주중보 장소: 동광국민학교 강당

41) 『자유민보』 1950. 3. 14., ‘경남미술가협회 11일 신발족’.

42) 『민주중보』 1949. 10. 20., ‘제2회 부산미술전 아뜰리에 역방(歷訪)(1) 제작에 중시일관, 이재(異才) 김종식씨의 모습’.

1948. 12.8~12	학교 작품전람회	장소: 남일국민학교 강당 주최: 학교미술연구회 (경남미술교육연구회)
1948.12.4~10	부산학교미술교사작품 전람회	주최: 학교미술연구회 (경남미술교육연구회) 장소: 남일국민학교 강당
1949.2.24~3.2	경상포스터전	주최: 경남상업중학교 미술부 장소: 미국문화연구소
1949.4.14~19	미술전람회	주최: 경남미술협회 장소: 미국문화연구소
1949.4.24~30	제1회 경남미술연구회작품전	주최: 경남미술연구회 장소: 부산공회당
1949.4.23~27	경중 미술전람회	후원: 경남미술교육연구회, 도학무국 장소: 미국문화연구소 학행 작품 50여점
1949.6.14~18	중등생미술전	주최: 미술교육연구회
1949.6.19~?	중초등교사미술전	주최: 미술교육연구회
1949.7.16~30	정종여 동양화개인전	후원: 민주중보 장소: 미공보원
1949.7.20~30	경남 종합미술전	주최: 경남미술교육연구회, 미국문화공보원 후원: 학무국 장소: 미공보원
1949.8.25~31	독립1주년기념미술전람회	주최: 문충 부산지부 장소: 미공보원
1949.10.25~11.4	제2회 부산미술전람회	주최: 민주중보 후원: 도교육국 장소: 공회당
1949.11.12~?	6인전(양달석, 김남배, 이준, 우신출, 박성규, 서성찬)	장소: 카라리화랑 (동광동로타리 부근)
1950.1.13~18	제5회 양달석수채화전	장소: 미공보원
1950.1.21~28	예술사진합동전	장소: 미공보원 주최: 예술사진동인회, 재부산양화가

1950.2.23~26	경남보련주최 미술전 (국민미술제전)	주최: 국민보도연맹 경남연맹 장소:미공보원
1950.3.1~	3·1절기념미술전	
1950.4.15~21	제2회 경중미술전	주최: 경남 학도호국단, 경남미술교육연구회 장소: 미국문화관 <sup>43)</sup>
1950.3.21~4.5	제1회 재부미술가 멧상전	장소: 동아백화점
1950.4.30~5.4	김정현 개인전	장소: 미국문화관
1950.5.1~15	김남배 개인전	장소: 동아백화점
1950.5.6~11	제3회 전국예술사진전	주최: 부산사진예술연구회 장소: 미국문화관
1950. 5. 23~31	혁토사전(제2회 경미전)	주최: 경남미술연구회 장소: 미국문화관
1950.6.2~12	정지용, 정중여 합작 시화전	
1950.6.20~26	제1회 경남미술협회전	주최: 경남미술협회 장소: 미국문화관

### Ⅲ. 김종식의 해방기 작품과 시대의 기록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김종식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것은 1942년경이었다. 이후 보국대 징용을 피해 일시 은신했던 그는 시청 축탁 등을 거쳐<sup>44)</sup> 해방과 함께 모교였던 동래공립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부산에서의 본격적인 미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듬해 2월, 동 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을 필두로, 조선미맹 부산지부가 주최한 3·1절과 8·15기념미술전, 민주중보 주최 부산미술전, 경남미술교육연구회 미술전 등에 활발히 참여했다(<표 2>).

43) “미국공보원은 문화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종전의 명칭을 변경하여 앞으로 미국문화관으로 호칭하게 되었다 한다”. 『부산일보』 1950. 3. 19., ‘공보원 소식’.

44) 부산시립박물관, 『김종식』, 2018, 248쪽 연보 참조.

〈표 2〉 1940년대 김종식 작품 목록<sup>45)</sup>

일시	전람회	출품 작품
1940.7.7.~16.	춘광회양화소품전	<악마의 꽃>, <풍경>, <애기주인>, <새벽>
1940.	-	<명상>
1943.	-	<환생>, <성숙기>
1944.	-	<세여인>
1946.2.	개인전	<소꿉친구>, <해방감격>, <여인상> 등 39점
1947.3.1.~5.	3.1기념미술전 (조선미맹 부산지부)	<영(英)>, <밤>, <추억>, <봄>, <여급(女給)>
1947.6.28.~7.4.	제1회 미술전람회 (조선미맹 마산지부)	<여급>
1947.8.15.~20.	8.15기념미술전 (조선미맹 부산지부)	<해방감격>(특선), <해방소식>, <투사>
1947.	-	<귀환동포>, <전쟁(풍경?)>, <제비>
1948.7.7.~16.	춘광회양화소품전 <sup>46)</sup>	<악마의 꽃>, <풍경>, <애기주인>, <새벽>
1948.11.5.~11.	제1회 부산미술전람회	<풍경>A, <풍경>B, <풍경>C
1948.	-	<소와 여인>
1949.7.21.~30.	경남미술교육연구회 제1회미전	<농부>, <들>
1949.10.25.~11.4.	제2회 부산미술전람회	3점
1949.	-	<피안>, <부산항>A, <부산항>B, <판자촌>, <소꿉동무>
1950.	-	<여인>, <조선소>

45) 현 목록은 『김종식 회갑작품집』(1978), 『김종식회집』(부산일보사, 1988), 『김종식』(부산시립미술관, 2018), 신문기사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작품명, 제작년도, 출품 이력 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46) 춘광회양화소품전은 기존 도록(2018년) 등에서 1940년 발족한 일제강점기 춘광회로 표기되어 왔으나, 『부산신문』 1948. 7. 10일자 백양다방 광고를 통해 1948년 동일 이름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별도의 전시임을 확인하였다. 관련 오류에 관해서는 옥영식 이 지적한 바 있다. 『천상, 부산사람 김종식』, 2025, 279쪽.

이상과 같이 김종식의 1940년대 출품 이력과 현존하는 작품을 살펴 보면, 유학기를 거쳐 1945년 해방 이전까지는 서구 모더니즘의 다양한 양식적 실험을 모색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을 주제로 제작한 1940년 작 <명상>에 대해 화가는 다음과 같이 추상과 구상이 혼재한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여인을 그린 8호 크기의 그림,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명상>이라고 할까. 1940년 23세 때 그린 것이다. 일본 동경의 제국미술학교 2학년 때의 작품. (중략) 당시 미술의 흐름은 대체로 후기인상파를 좇는 것이었다. 서구에서는 후기인상파의 흐름이 지나갈 무렵이었다. 후기인상파 시대에 입체파-미래-사실-고전파로 나뉠 때다. 이 그림은 여인의 오른쪽은 구상 쪽으로, 왼쪽은 추상으로 처리되어 있다. 입체파적인 것을 몰랐다면 한쪽은 추상이고 한쪽은 구상인 채 한 화폭에 담긴 이런 작품이 안 나왔을 거다. 추상과 구상이 합류하는데서 명상적이고 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47)</sup>

이러한 시도는 1944년 작 <세여인> (<도 2>)에서도 엿보인다. 새와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3명의 반라의 여성과 함께 꽃과 식물들 사이로 화려한 깃털의 공작새와 앵무새로 보이는 2마리의 새를 함께 배치했다. 그러나 실제보다 유독 목이 길고 거대하게 그려져 있는 공작새를 비롯해 화면은 향우측의 건물을 기준으로 밝음과 어두움, 자연과 인공, 기쁨과 슬픔으로 극명하게 분할된다. 이처



<도 2> 김종식, <세여인>, 1944년, 김종식미술관

47) 『부산일보』 1982. 8. 12., ‘다시 생각하는 나의 처녀작(7) 김종식’.

럼 비현실적 공간구성과 사물의 크기, 형태의 왜곡 등에서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이 외에 여성의 얼굴에서는 측면과 정면이 공존하는 입체파의 흔적이 엿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기의 실험적인 태도와 <명상>, <환생>과 같은 추상적인 주제는 1945년 해방 전후를 기점으로 급변하기 시작한다. 첫 개인전에 출품한 <해방감격>을 시작으로, <여급>, <귀환동포>, <전쟁> 등 당대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부산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귀환동포>(<도 3>)는 해방을 계기로 부산항을 통해 귀국했던 전재민(戰災民)들의 힘겨운 삶의 순간을 포착한 작품이다. 길게 늘어선 부둣가의 수용소 창고를 배경으로 한겨울 솔을 걸고 삼삼오오 모여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이 시기 특유의 어두운 색조를 이용해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1946년 시점에 부산에 잔류한 귀환동포 수는 20만 명을 넘었고, 이들의 비참한 상황은 다음 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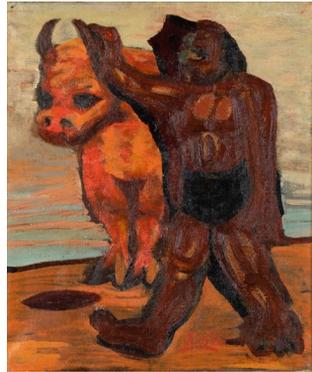
“과거 이 땅의 백성이 살길을 찾아 몰려나갔던 정반대로 해방된 오늘날 몰려나갔던 그들은 조국을 향해 부산항으로 몰려든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부산에 상륙한 전재 귀환동포는 계획수송선으로 80만 명, 사선(私船)으로 상륙 25만 합계 150만 명을 초과하였는데 이들 중에 갈 곳이 없어서 부산에 남아 있는 수가 20만 명이나 되어 부산항은 인구가 급격히 증사되며 따라서 주택난, 식량난, 궁핍, 물가 폭등, 일화(日貨) 교환을 싸고도는 온갖 범죄와 대일 밀수출의 죄악상과 치안 질서 문란, 염병 제uel, 실업자 문제 등 그 해결에 시급을 요하는 온갖 사회문제가 교차되는 가운데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sup>48)</sup>

48) 『조선일보』 1946. 2. 11., ‘곤비(困繼), 기아, 여역(癘疫), 범죄로 혼란의 감과(坍塌)된 부산’.

갈 곳 없는 귀환자들로 넘쳐나던 부산은 기아와 전염병, 범죄가 빈번했고 특히 주택난과 식량난은 심각했다. 주거지가 없는 이들은 대부분 행정당국이 제공하는 부산역, 부두, 세관 근처의 화물 창고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을 하기도 했다.<sup>49)</sup> 한겨울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한 채 “부두에 흩어진 밀과 석탄으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들을 죽지 못해 살아”<sup>50)</sup>가는 전재민들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심리를 대변하듯, <귀환동포>에는 검은 그림자의 인물을 그려 넣었다.



<도 3> 김종식, <귀환동포>, 1947년, 부산시립미술관



<도 4> 김종식, <소와 여인>, 1948년, 부산시립미술관

이러한 검은 그림자는 김종식의 초기 작품에서 종종 찾을 수 있는데, 1948년 작 <소와 여인>(도 4)에서도 황소를 어루만지는 건장한 남성 뒤로 불안한 내면을 상징하듯 검은 실루엣이 겹쳐 있다. 그림자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타포로, 무의식, 불안과 공포, 억압된 현실 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한국전쟁기에

49) 수용소 내의 상황도 열악하여 100평 규모에 1600여 명이 생활한 것으로 보고된다. 차철욱, 『해방 후 부산지역 귀환동포의 이주와 정착』, 『해양도시문화교섭학』 30, 2024, 181~186쪽.

50) 『조선일보』 1947. 1. 4., ‘구하자 이 참상을’.

제작한 <노상>에서도 난전에서 물건을 파는 인물 군상 사이로 검정 실루엣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처럼 초현실주의적 요소를 가미해 사회 현실을 그려내는 방식은<sup>51)</sup> <귀환동포>와 같은 해 제작된 <전쟁>(<도 5>)에서도 엿보인다. 본 작품은 멀리 보이는 비행기와 폭격의 흔적을 통해 1990년대 이후 대동아 전쟁을 주제로 한 <전쟁>이라는 작품명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강선학의 지적대로 작가 생존 당시에는 <풍경>으로 제명되었고, 실제 내용에서도 전쟁보다는 부산항을 배경으로 한 당대 사건을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sup>52)</sup>

부산항은 김종식이 즐겨 그리던 주제였다. 특히 1947년 중구 대청동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집에서 내려다본 부산항의 모습을 다수 제작했다. 1947년에 그린 <부산항 겨울>(<도 6>)은 부산항 제1부두를 중심으로 영도와 신선대, 멀리 오륙도가 보이는 풍경을 강렬한 필치로 그린 작품으로, <전쟁>에 보이는 만을 이루는 바다의 형태와 화면 좌측의 약간 높다가 점점 편평하게 낮아지는 구름은 신선대와 흡사하다. 게다가 불빛에 따라 붉게 일렁이는 파도, 밤을 연상케하는 검푸른 하늘과 머리에 띠를 두른 결의에 찬 노동자의 모습, 그리고 제작 시기를 염두에 두면 본 작품은 1946년 발생한 미군정기 최대 파업이었던 9월 총파업과 이어지는 10월 항쟁을 소재로 삼았을 여지가 있다. 특히, 10월에는 부산해원동맹 노동자들이 부산항 내외의 기선과 기범선 100여 척을 이끌고 시위를 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51) 김미정은 김종식의 이러한 방식을 일본의 전후 리얼리즘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1950년대 부산 지역미술의 리얼리즘 경향』, 『한국근현대 미술사학』 22, 2011, 221~222쪽).

52) 김종식 생존 당시인 1979년 『부산미전 30년전』 도록에서는 <풍경>으로 소개되었다. 강선학, 『김종식, 부산미술에서의 위상』, 부산문화예술전자아카이브(<http://e-archive.bscf.or.kr>)(검색일: 2025. 8. 29.).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 상태에 들어간 남조선 해원 파업은 드디어 부산 지방에도 파급되었다. 8일 정오 사이렌을 신호로 부산항 내외의 기선과 기범선 백여 척은 일제히 기적을 높이 올리며 부산항 내에 밀려들어 선박 시위를 감행하였는데 밤에 들어서는 약 사십여 개의 서치라이트를 방사하여 긴장을 보이였다.”<sup>53)</sup>

라고 하여 야간 시위를 감행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품에 보이는 붉은 바다와 초록의 둥근 점들은 시위 선박들의 야간 서치라이트 불빛을, 그리고 화염의 흔적은 당시 미군정이 전차와 비행기를 동원하여 위협 시위를 하고 경찰과 군중 24명이 사망했던<sup>54)</sup> 긴박했던 상황과 오버랩된다. 그리고 이를 기록하듯 펜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인물은 작가 본인을 떠올리게 한다.<sup>55)</sup>



〈도 5〉 김중식, 〈전쟁〉,  
1947년, 개인소장



〈도 6〉 김중식, 〈부산항〉, 1949년,  
부산시립미술관

53) 『경향신문』 1946. 10. 11., ‘부산항 선박시위’.

54) 『9월 총파업』(부산역사문화대전(<https://busan.grandculture.net>), 검색일:2025.8.29.),

55) 김중식은 일찍부터 작은 스케치북과 화구통을 들고 다니며 드로잉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부산일보』 1976. 8. 17. ‘화구통’(김중식).

본 작품과 관련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해방 이후 김종식이 자신만의 화풍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시대를 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미술 수립의 열망으로 가득했던 시기, 그의 작품 변화에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좌파 계열의 미술운동이 초기 부산화단을 주도했던 사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당대 현실을 그려내고자 한 그의 태도는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3년 유행이나 중앙화단의 화풍을 따르기보다 부산미술만의 특질을 찾고자 결성한 토벽동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손끝의 기교나 부박한 유행”이 아니라 “진지한 행동의 반영”<sup>56)</sup>으로 무거운 삶의 현실을 그려내고자 했던 부산 화가들의 의지는 이후, 전후 시대의 증언자를 자처한 청맥 동인으로 계승되어 부산미술의 중요한 맥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종식의 1940년대 작품은 좌우 이념 대립을 넘어 스스로의 화풍을 모색하고자 했던 해방기 부산화단의 자생적 실천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생각된다.

#### IV. 맺음말

이상, 논고에서는 김종식이라는 부산을 대표하는 1세대 서양화가를 중심으로 해방기 부산화단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1945년 해방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4년 남짓의 짧은 기간, 치열한 좌우 분열의 이념투쟁은 미술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부산에서도 다수의 단체가 이합집산을 지속했다. 미맹 부산지부의 결성과 해산에서 1950년 경남미협 통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이념 노선과 정책

56) 『토벽동인전』 카탈로그, 1953.

에 따라 단체를 조직하고 새로운 모색을 거듭해야 했던 해방기 미술계의 현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광복 이후의 1940년대 후반은 어느 때 보다 치열한 민족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숙고의 시대였다. 이를 논고에서는 김종식의 해방기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유학기의 다양한 양식적인 모색을 거쳐, 화풍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1945년 해방을 전후한 시점이었다. 이 시기 제작한 <귀환동포>, <전쟁> 등에는 기존의 추상적, 실험적 작품에서 벗어나 당대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좌우의 치열한 이념 대립을 넘어, 귀환동포의 암울한 삶의 모습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무거운 삶과 시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이후 토벽동인과 청맥으로 이어져 부산미술의 한 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종식의 해방기 미술은 부산미술의 시원으로서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사료

- 『경향신문』, 『노력인민』, 『동아일보』, 『문화일보』, 『민주중보』, 『부산신문』, 『부산일보』, 『산업신문』, 『자유민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3·1기념 미술전람회』 리플릿, 1947.  
 『8·15기념 미술 전람회』 리플릿, 1947.  
 『토벽동인전』카탈로그, 1953.

### 2. 저서 및 논문

- 경남도립미술관, 『여산 양달석』, 2021.  
 김동화, 『화가 서성찬에 관하여(2)』,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 9, 2017.

- 김미정, 『1950년대 부산 지역미술의 리얼리즘 경향』,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 2011.
- 김인아, 『부산·경남지역 서양화단 연구-1930~50년대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문화유산』 5, 2016.
- 김정선, 『일제강점기 『부산일보』 주최 미술사업』, 『석당논총』 86, 2023.
- 김효경, 『김종식의 회화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동서화랑, 『여산 양달석화백 유작전』, 1995.
- 부산문화재단, 『천상. 부산사람 김종식』, 2025.
- 부산시립미술관, 『도큐멘타 부산 자료로 보는 부산미술 I·II』, 2006.
- \_\_\_\_\_, 『김종식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2018.
- 부산일보사, 『김종식화집』, 1988.
- 신수경, 『청계 정종여의 해방기 작품과 활동-민족미술론의 수용과 실천』, 『미술사 학보』 47, 2016.
- 이용길, 『부산미술사료』, 부산발전연구원, 2006.
- 정무정, 『미 군정기의 문화정책과 미술계』, 『미술사연구』 18, 2004.
- 정종효, 『부산미술, 일제강점기의 생성과 피란수도기의 조용적 전개-서양화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3-1, 2020.
- 조은정, 『해방기 문화공작대의 의제와 성격』, 『상허학보』 41, 2014.
- 현대화랑, 『김종식 회갑 작품집』, 1978.

투고일: 2025. 10. 10. 심사완료일: 2025. 11. 12. 게재확정일: 2025. 11. 26.

| Abstract |

A Study of the Busan Art Scene in the Liberation Period  
- Kim Jongsik and the Record of the Times -

Kim, Jung-Sun

The liberation period (1945~1948), spanning from Korea's liber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governments in the North and South, was marked by intense ideological confrontation over the formation of a new nation-state. The art world likewise mirrored these tensions through repeated divisions and reorganizations of groups along ideological lines. As a result, the period has often been described as a "time of confusion" in which no clear artistic ideology emerged. Yet it was also a transformative moment, characterized by efforts to break from colonial legacies and to seek new cultural ident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Busan art scen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focusing on how local artists sought to define their own identity beyond ideological conflicts. Through the activities and works of Kim Jongsik, a first-generation Western-style painter in Busan, it explores the dynamics of local art communities. Beginning with the Busan Branch of the Art Alliance(부산미술동맹) in 1946, a series of groups such as the Busan Branch of the Art Alliance and Gyeongnam Art Association(경남미술협회) emerged and dissolved, revealing the shifting artistic landscape shaped by ideological and policy changes.

Amid these turbulent times, Kim Jongsik's paintings Returned Koreans and War(1948) marked a departure from his earlier abstract and experimental style, capturing instead the pressing realities of the era. His

gaze extended beyond the fierce ideological confrontations of the time, focusing on the heavy lives of ordinary people—from the bleak existence of returned Koreans to the struggles of workers. This perspective later connected to the Tobyuk-Group(토벽동인) and Chungmak(청맥), which emerged in the 1950s and positioned themselves as “witnesses of the times,” forming an important current within the Busan art scene. In this respect, Kim Jongsik’s liberation-period works represent a significant example of the autonomous artistic practices that characterized the local art community in Busan.

**Key Words:** Busan, the Liberation Period, Kim Jongsik, Busan Branch of the Art Alliance(부산미술동맹), Returned Koreans, Ideological Struggle.

